

5m 눈앞서 곤두박질...주민·학생들 가슴 쓸어내려

아수라장 된 수완지구 고실마을 사고현장

파편 30m까지 날아가...인근 음식점 유리창 박살 인근 정류장 승객 태운 시내버스 4초차로禍 면해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도판·Dauphin·AS365-N3)가 추락한 17일 오전 10시53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성덕중학교 앞 고실마을 시내버스정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헬기가 추락한 고실마을 부영2차 아파트 206동과 인도의 경계선인 토담(흙으로 만든 담벼락)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너비 1m·깊이 20~30cm 가량 움푹 패어 있었다.

추락사고를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449세대)과 성덕중 학생(1364명)·교사(60명), 주변 상가 주민들(50~100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영2차 206동은 사고지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7m, 성덕중학교는 10~12m, 상가는 10~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기체 파편은 사고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됐다.

성덕중 건물 뒷편엔 추락헬기의 불뿔이 튀면서 불이 나 관리인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수업 중 갑자기 ‘뽕’ 하는 소리를 들은 학생들 중 일부는 울음을 터트리면서 불안해했다.

파편을 맞은 김밥·스파게티 음식점 등의 유리창은 마치 미사일 폭격을 받은 듯 박살이 났다. 고실마을 시내버스정류장은 사고현장에서 고차 2~3m 거리. 박모(19·성덕고 3년)양은 이곳에서 홀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추락한 사고 헬기의 파편을 맞고 화상을 입었다.

또 헬기가 80도 각도로 곤두박질치기 불과 4초 전엔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한 대가

추락헬기 이륙부터 충돌까지



이 정류장을 막 지나치면서 가까스로 화(禍)를 면하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

스파게티 음식점 주인 전선옥(여·39)씨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 헬기 파편이 가게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까지 들어왔다”며 “평소처럼 출근했다면 나도 많이 다쳤을 것”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추락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신안실크벨리 아파트 입주민들도 하루 종일 바깥 출입을 삼갔다.

입주민 김진희(여·32)씨는 “두 살 배기 애기를 보면서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발코니 창문을 봤다. 빨강색 헬기가 순식간에 지나가더니, 갑자기 ‘뽕’ 하는 굉음이 들



17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헬기 추락사고 현장. 사고지점과 맞닿은 부영2차 206동 아파트는 헬기 조종사가 조정간을 놓지 않아 화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나명주기자 mina@

려왔다”며 “아기를 부둥켜 안고 한참동안 밖에 나가질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지 2시간이 지난후에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헬기가 학교나 아파트에 추락하는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주민 정승훈(37)씨는 “헬기가 저공으로

주변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보는데, 항상 불안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말했다.

“공군 측에선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리곤 하지만 항상 도심 추락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항 때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법 시행규칙상(제171조·최저비행고도) 사람 또는 건축물 밀집 지역의 상공에선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늘 믿음직한 조종경력 25년의 베테랑 묵묵히 후배·동료 챙긴 소방본부 ‘만형’

조종사 故 정성철·박인돈

광주 도시에 추락한 소방헬기 조종사 고 정성철(52)소방경과 고 박인돈(50)소방위는 조종경력 25년의 베테랑 조종사로, 동료들은 ‘만형’같은 형님들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 소방경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시골마을에서 70대 노모와 장모를 함께 모시고 살 정도로 이른바 효자다. 그는 근무시간이면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해 청소를 할 정도로 후배를 챙기고 책임감이 강했던 조종사였다. 동료들은 “생사를 걸어야 하는 특수임무에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조종사였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소방경은 자신의 아들인 정재현(23)씨를 ‘비담’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만큼 자상한 아버지기도 했다. 한 동료 조종사는 “재현(아들)이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와 ‘삼촌~삼촌~’을 불렀

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의지해온 가족같은 형님을 잃어 비통하다”고 울먹였다.

정 소방경과 함께 조종석을 지킨 박 소방위는 다음주 가족들과의 휴가를 앞두고 있었다. 평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는 묵묵히 후배 동료들을 챙겨왔다고 한다.

동료들은 “형님은 자신이 아프면 다른 누군가 나 대신 대체근무를 해야 한다”며, “술을 멀리하고 항상 운동을 해 자기 관리를 해온 믿음직한 동료”라고 전했다.

두 조종사는 모두 1989년부터 육군에서 헬기조종을 시작한 2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로, 항공준사관(준위)로 전역했으며 정성철 소방경은 2005년 12월, 박인돈 소방위는 2009년 11월부터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근무했다.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광주 공군비행단 관제탑, 훈련기 충돌 우려 210m 저공비행 유도...손 쓸 틈 없이 “꽝”

이륙 하자마자 도심 추락 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도판·Dauphin·AS365-N3)가 광주공항 관제탑과 교신할 틈도 없이 도심으로 추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7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 항공구조구급대 등에 따르면 광주공항에서 이륙하는 헬기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관제탑에서 무전 교신으로 승인을 받은 뒤 이륙한다.

이륙 후엔 광주공항 상공에서 헬기 항로(방향·트랙)에 대해 교신한 뒤 다음 교신 지점을 정한다.

대개 다음 교신지점은 서울·강원도 등 북쪽 루트인 하남지구~수완지구(너비 5~10km)·비어를 거쳐 전남과 광주의 접경지역인 광산 IC다. 이곳에서 광주권역 관할인 관제탑과 “광주를 벗어나다”는 내용으로 마지막 교신을 한다는 게 헬기 조종사들의 설명이다.

이날 사고 헬기는 오전 10시49분 이륙한 뒤 10시50분~51분께 광주공항 상공에서 헬기 항로(북쪽·춘천기지)를 정한 것까지 정상적으로 교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엔 관제탑과 사고 헬기 간 주고받은 교신이 없었다는 게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측의 설명이다.

사고 헬기 조종사 고(故) 정성철(52)씨가 손 쓸 틈도 없이 도심 한복판으로 급락했다는 얘기다. 이는 사고 헬기가 저공비행을 한 탓인데, 관제탑을 지휘하는 공군제1전투비행단이 도심 상공을 지나가는 헬기 조종사들에게 210m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헬기 조종사들의 주장이다.

이번 사고 헬기도 관제탑 지시를 받은 뒤 저공비행을 하다가 기체에 이상이 생기자 조종사가 손 쓸 틈도 없이 도심으로 곤두박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명을 요구한 한 헬기 조종사는 “평소 공군 관제탑이 공군 훈련기와 충돌을 우려해 210m 이하로 저고도 비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공군 측에선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리곤 하지만 항상 도심 추락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항 때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법 시행규칙상(제171조·최저비행고도) 사람 또는 건축물 밀집 지역의 상공에선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위장병, 반복할 것인가?

카베진으로 회복할 것인가!

지저스런 반복되는 위장병!
시도 때도 없이 괴로운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에 오해 내내 별다른 처방없음과 답답함, 신트림 등... 위장병은 왜 반복될까요?

문제는 바로 위장막!
손상된 위장막은 반복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은 위장막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유래 성분 MMSC의 위장막 회복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은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위장막을 회복시키고 위장병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MMSC(메틸메티오닌)는 위장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 추출물의 항산화성분인 시스테인 나리코도 불리며, 위장막 수복 효과와 긴 장에 대한 개선효과 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Jpn Pharmacol Ther(약리와 치료) 35(1), 41-49(2007)

지저스런 위장병을 개선시키는 4가지 효과! 새로 나온 카베진코와 S정

- MMSC 성분으로 위장막 회복 효과
- 재산성분 배합으로 위산 자극 완화 효과
- 침출건조엑스 함유 위 운동 촉진 효과
- 리파제 AP12의 소화 작용 촉진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의 2중정 작용

오중과 핵종의 2중정제 순차적으로 분해되어 각 성분이 위장병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핵심 성분인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위산배출 증진, 위장 운동 촉진, 위장염, 위궤양, 위암 예방 + MMSC의 위장막 회복

위장병을 회복할 땐 카베진코와 S